

미니테스트 제 3 회

문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20행언나-04

㉠ 한국어 계통 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학설인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은 한국어가 알타이 어군인 튀르크어, 몽고어, 만주·통구스어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은 알타이 어군과 한국어 간에는 모음조화, 어두 자음군의 제약,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의 부재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비교언어학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 어휘와 음운 대응의 규칙성에서는 세 어군과 한국어 간에 차이가 있어 이 학설의 비교언어학적 근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은 알타이 어군과 한국어 사이의 친족 관계 및 공통 조상어로부터의 분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 최근 한국어 계통 연구는 비교언어학 분석과 더불어, 한민족 형성 과정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 한반도에 공존했던 여러 유형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인류학적 연구를 이용하고 있다. 가령, 우리 민족의 유전 형질에는 북방계와 남방계의 특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과 북방계의 천손 신화와 남방계의 난생 신화가 한반도에서 모두 발견된다는 점은 한국어가 북방적 요소와 남방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런 연구들은 한국어 자료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극복하여 한국어의 조상어를 밝히는 데 일정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 하지만 선사 시대의 한국어와 친족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어군들을 알 수는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한국어의 공통 조상어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에는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세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인지, 아니면 방언적 차이만을 지닌 하나의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 고구려어가 원시 부여어에 소급되는 것과 달리 백제어와 신라어는 모두 원시 한어(韓語)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들 언어의 차이가 방언적 차이 이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들 세 언어가 고려의 건국으로 하나의 한국어인 중세 국어로 수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학계가 대립된 입장을 보이지 않지만, 중세 국어가 신라어와 고구려어 중 어떤 언어로부터 분화된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두 학계의 입장은 대립된다. 한편, 중세 국어가 조선 시대를 거쳐 근대 한국어로 변모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한국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두 학계의 견해가 일치한다.

- ① 비교언어학적 근거의 한계로 인해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은 알타이 어군과 한국어 간의 친족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 ② 한반도의 천손 신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한국어에 북방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 ③ 최근 한국어 계통 연구는 부족한 한국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한민족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와 한반도에 공존한 건국 신화들을 이용한다.
- ㉣ 최근 한국어 계통 연구에서 백제어와 고구려어는 방언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계통으로 분류된다. → 방언적 차이 이상
- ⑤ 중세 국어에서 현대 한국어에 이르는 한국어 형성 과정에 대한 남북한 학계의 견해는 일치한다.

문 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2020행언나-15

1 장수 비결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장수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하나 필요한 조건은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이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90세 이상 장수 노인 100명과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조기 사망자 100명, 총 20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표본 집단 X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장수 노인 중에 이 연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X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해 추가로 알려진 정보는 다음과 같다.

3 I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면역지수가 낮았는데, 조기 사망자는 모두 면역지수가 낮았다. II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모두 혈중 콜레스테롤 지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조기 사망자는 모두 혈중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았다. III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β 호르몬이 평균치보다 적게 분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β 호르몬이 평균치보다 적게 분비된 사람은 모두 체지방 비율이 정상 범위를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기 사망자는 아무도 체지방 비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① X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 → 장수 비결, 조기 사망자 모두 해당 (by I, IV)
 ② X에 속한 장수 노인 중에 혈중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은 사람은 없다. → 독 ②을 만족하므로 콜레스테롤 ↓ (by II)
 ③ X에 속한 조기 사망자 중에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은 사람이 있었다. → ②을 만족하지 않음 (by II)
 ④ X에 속한 장수 노인 중에 체지방 비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 → ②을 만족하기 때문에 전건 부정에 해당 (IV 참고)
 ⑤ X에 속한 조기 사망자라면 누구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거나 β 호르몬이 평균치보다 적게 분비되지 않았다. → 이소

I. 장수: ①, ②, ③

by IV

II. ~① → 면역 ↓

조기: 면역 ↓ (후견 긍정) ∴ 조기: ① or ~① (이소?)

IV. ② → 콜레스테롤 ↓

조기: 콜레스테롤 ↑ (후견 부정) ∴ 조기: ~②

IV. ~② → β 호르몬 ↓ → 체지방 ↑

조기: ~체지방 ↑ (후견 부정) ∴ 조기: ~ β 호르몬 ↓, ②

	①	②	③
장수 비결	○	○	○
조기 사망자	?	○	×

문 3. 다음 글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행언가-06

- ① **1** 흔히들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엄밀한 물리학적 언어만을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검사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물리학적 언어 외에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일상적 언어도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일상적 언어에는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물리학적 언어와는 달리 매우 불명료하고 엄밀하게 정의될 수 없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용어들을 '발롱엔'이라고 부른다.
- 2** 이제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검사하는 과정에 발롱엔이 개입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증거가 가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지에 관해 미결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증거를 표현할 때 포함될 수밖에 없는 발롱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증거와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발롱엔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불명료할 수밖에 없다. 즉, 발롱엔을 아무리 상세하게 정의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3** 논리실증주의자들이나 포퍼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설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증거와 가설이 상충하면 가설이 퇴출된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 단순한 것이다.

증거와 가설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발롱엔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증거 해석 노지
- ① 과학적 가설과 증거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 ② 과학적 가설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배제해야 한다. →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일상적 언어를 사용해야 함
- ③ 과학적 가설을 검사하기 위한 증거를 표현할 때 발롱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롱엔은 사용될 수밖에 없음
- ④ 과학적 가설을 표현하는 데에도 발롱엔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 기본 전제일 뿐 결론은 부작당
- ⑤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발롱엔의 존재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거 해석 노지

문 4. 다음 <표>는 ‘갑’국의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시험 시행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2020행자나-10

<표>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시험 시행 결과
(단위: 명, %)

구분 등급	필기			실기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기술사	5 19,327	2,056	10.6	5 3,173	1,919	60.5
기능장	4 21,651	9,903	40.1	4 16,390	4,862	29.7
기사	2 345,833	135,170	39.1	2 210,000	89,380	42.6
산업기사	3 210,814	78,209	37.1	3 101,949	49,993	40.1
기능사	1 916,224	423,269	46.2	1 752,202	380,198	50.5
전체	1,513,849	648,607	42.8	1,083,714	526,352	48.6

※ 합격률(%) = $\frac{\text{합격자}}{\text{응시자}} \times 100$

<보 기>

- ㄱ. ‘기능장’과 ‘기사’ 필기 합격률은 각각의 실기 합격률보다 낮다. → 기능장은 필기 합격률이 더 높음
- ㄴ. 필기 응시자가 가장 많은 등급은 필기 합격률도 가장 높다. → 기능사
- ㄷ. 실기 합격률이 필기 합격률보다 높은 등급은 3개이다. → 4개
- ㄹ. 필기 응시자가 많은 등급일수록 실기 응시자도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기능장

$$\text{ㄴ. } \frac{9,903}{21,651} < \frac{9,900}{21,600} = \frac{11}{24} = \frac{44}{96} = \frac{46.2}{100.8} < 46.2\%$$

기능사

문 5. 다음 <표>는 성별, 연령대별 전자금융서비스 인증수단 선호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행사가-33

<표> 성별, 연령대별 전자금융서비스 인증수단 선호도 조사결과
(단위: %)

구분	인증 수단	휴대폰 문자 인증	공인 인증서	아이핀	이메일	전화 인증	신용 카드	바이오 인증
성별	남성	72.2	69.3	34.5	23.1	22.3	21.1	9.9
	여성	76.6	71.6	27.0	25.3	23.9	20.4	8.3
연령대	10대	82.2	40.1	38.1	54.6	19.1	12.0	11.9
	20대	73.7	67.4	36.0	24.1	25.6	16.9	9.4
	30대	71.6	76.2	29.8	15.7	28.0	22.3	7.8
	40대	75.0	77.7	26.7	17.8	20.6	23.3	8.6
	50대	71.9	79.4	25.7	21.1	21.2	26.0	9.4
전체		74.3	70.4	30.9	24.2	23.1	20.8	9.2

- ※ 1) 응답자 1인당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선호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했음.
2) 인증수단 선호도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인증수단을 선호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임.
3) 전자금융서비스 인증수단은 제시된 7개로만 한정됨.

② $A \cap B = A + B - 100 = 74.3 + 70.4 - 100 = 44.7\%$
A, B 이외의 선호도 대수 합 (108.2) > 100
 $\therefore A \cap B$ 응답자 (44.7% 이상)는 나머지 중 1개를 반드시 추가로 선택해야만 함

- ① 연령대별 인증수단 선호도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 모두 아이핀이 3번째로 높다.
② 전체 응답자 중 선호 인증수단을 3개 선택한 응답자 수는 40% 이상이다.
③ 선호하는 인증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남성 수는 바이오 인증을 선택한 남성 수의 3배 이하이다.
④ 20대와 50대간의 인증수단별 선호도 차이는 공인인증서가 가장 크다.
⑤ 선호하는 인증수단으로, 이메일을 선택한 20대 모두가 아이핀과 공인인증서를 동시에 선택했다면, 신용카드를 선택한 20대 모두가 아이핀을 동시에 선택한 것이 가능하다.

24.1% 36.0% 67.4%
⑤ 이메일 아이핀 공인인증서
○ ○ ○ → 24.1% (다른 선택 적)
× ○ → 11.9% (" ") < 16.9% (신용카드)
= 36.0 - 24.1
 \therefore 신용카드 선택자 모두가 아이핀을 선택하는 것은 적

문 6. 다음은 ‘갑’국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자료는? 2020행자나-23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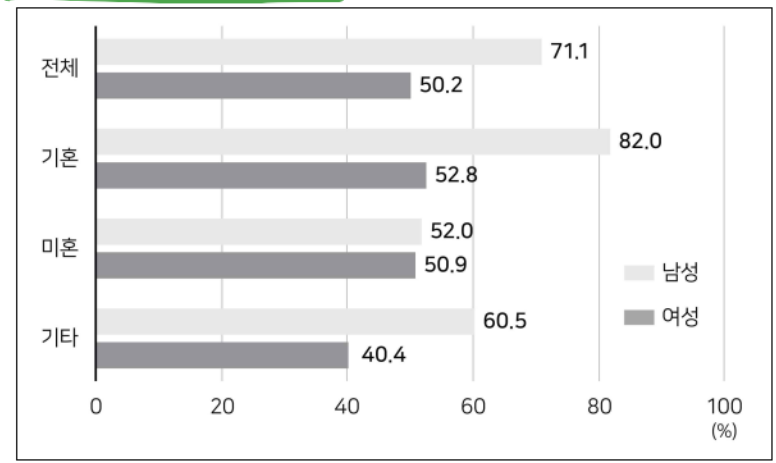
- ㉔ 2018년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수는 1,828개로 2017년보다 30 % 이상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각각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인 유연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2018년이 2017년보다 37.1%p 증가하였다.
- ㉕ 2018년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2017년 보다 1.0%p 증가하였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이 초·중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보다 낮았다.
- ㉖ 한편, 남녀간 고용률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여 2018년 기혼 남성과 기혼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29.2%p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㉗ 2018년 육아휴직자 수는 89,795명으로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였는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보다 증가한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는 2017년보다 30 % 이상 증가한 2,761명으로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① 육아지원제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육아 휴직자 수	여성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남성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	여성	37	415	692	1,032	1,891	2,383
	남성	2	22	44	84	170	378

② 2018년 혼인상태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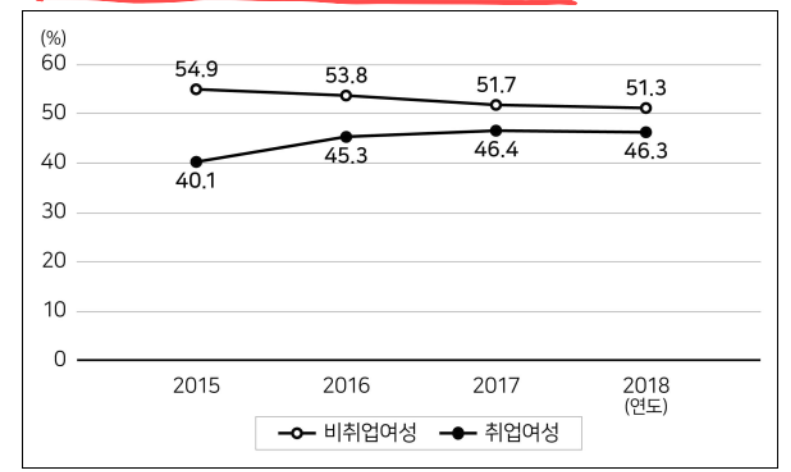


③ 가족친화 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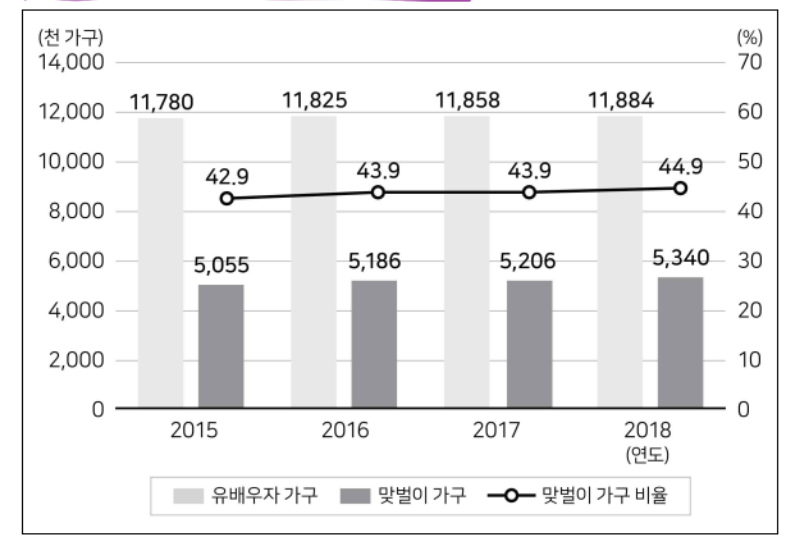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비율	전년 대비 증가율
대기업	223	258	285	15.6	10.5
중소기업	428	702	983	53.8	40.0
공공기관	305	403	560	30.6	39.0
전체	956	1,363	1,828	100.0	34.1

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경력단절 경험 비율



⑤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현황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상나-05

제00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④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업무시간은 09:00 ~ 18:00이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3근무시간: 업무시간 내 3시간

※ 광복절(8월 15일, 화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그 이외에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A부처는 8.7(월) 16시에 건의민원을 접수하고, 8.21(월) 14시에 처리하였다. → 17일부터 세면 10일째 되는 날이 21일임.

ㄴ. B부처는 8.14(월)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10일간 실지조사를 하여 9.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 총 17(=7+10)일까지 며. but 14일부터 세면 때 17일째 되는 날은 9/6

ㄷ. C부처는 8.16(수) 17시에 기타민원을 접수하고, 8.1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 16일 17시 + 3근무시간 = 17일 11시

ㄹ. D부처는 8.17(목)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하고, 8.22(화) 14시에 처리하였다. → 17일 11시 + 4일 = 23일 11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1	2	3
4	5	6	7	8	9	10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20행상나-24

1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결의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이하 '결의취소의 소'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이들 이외의 사람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이사·감사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원고인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해임·사임·사망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소송은 그대로 종료하게 된다.

2 결의취소의 소는 해당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며, 회사 아닌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고, 회사에 대한 소송만 진행된다.

한편 회사가 피고가 된 소송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이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사와 대표이사의 공모를 막기 위해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이사 이외의 자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며, 그 대표이사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상 황>

A회사의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甲을 해임하고 새로이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乙이 즉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법령에 위반된 것이었다. A회사의 주주는 丙과 丁 등이 있고, 이사는 戊, 감사는 己이다. 甲과 乙은 주주가 아니며, 甲은 대표이사 해임결의로 이사의 지위도 상실하였다.

① 甲이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판단해야 한다. → 부적법 각하됨.

② 丙이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乙이 A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 丙은 이사가 아니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乙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 수행

③ 丁이 A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A회사와 乙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 각하된다. → A회사에 대한 소는 적법함.

④ 戊가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甲이 A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 戊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 수행

⑤ 己가 A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己의 임기가 만료된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유지된 것이므로 적법함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우수부서 수와 기념품 구입 개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2020행상나-27

A기관은 탁월한 업무 성과로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포상금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포상금 사용기준>

○ 포상금의 40 % 이상은 반드시 각 부서에 현금으로 배분한다. 최소 2,000만원

— 전체 15개 부서를 우수부서와 보통부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우수부서에 150만 원, 보통부서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배분한다.

— 우수부서는 최소한으로 선정한다.

○ 포상금 중 2,900만 원은 직원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한다.

○ 직원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부서별로 현금을 배분한 후 남은 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개당 1만 원의 기념품을 구입한다.

	우수부서 수	기념품 구입 개수
①	9개	100개
②	9개	150개
③	10개	100개
④	10개	150개
⑤	11개	50개

15개 부서 모두 보통부서인 경우 → $100 \times 15 = 1,500$ 만원

우수부서에 추가 지급되는 포상금 = $50x$ (+)

$1,500 + 50x = 2,000$

$\therefore x = 10$

$5,000 - (2,000 + 2,900) = 100$ 만원

$= 1\text{만원} \times 100$

문 10.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의 점수는?

2020행상나-15

—<상 황>—

- 甲, 乙, 丙이 과제를 제출하여 각자 성적을 받았다.
- 甲, 乙, 丙의 점수는 서로 다른 자연수로서 세 명의 점수를 합하면 100점이 되며, 甲, 乙, 丙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 甲, 乙, 丙은 자신의 점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의 점수는 모르고 있다.

—<대 화>—

甲: 내가 우리 셋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
乙: 甲의 말을 들으니 우리 세 사람이 받은 점수를 확실히 알겠네.
丙: 나도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점수를 확실히 알겠어.

- ① 1

② 25
- ③ 33

④ 41
- ⑤ 49

→ 甲 ≥ 50, 甲 + 丙 ≥ 61 ∴ 乙 ≤ 49
→ 가능한 점수 조합이 개뼉이면,
乙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49점)를 받아야 함
∴ 甲 = 50점, 乙 = 49점, 丙 = 1점